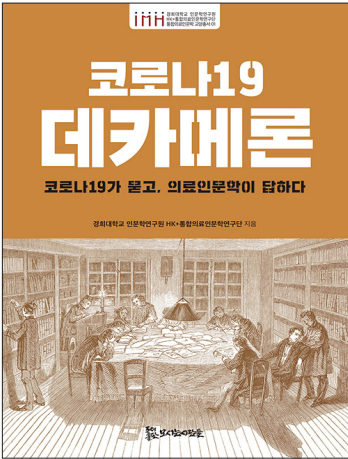


내 책을 말한다, 『코로나19 데카메론』



『코로나19 데카메론』은 흑사병을 피해 모인 열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데카메론』의 제목을 차용했다. (사진=픽사베이)



책에는 '통합의료인문학'의 지향을 공유하는 19명의 연구자가 쓴 32개의 글이 실렸다.

요성을 강조했으며, 「선용의 지혜」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공동체 의식을 상기시켰다.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과 「혐오의 시대: 올드 노멀을 꿈꾸며」는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성찰하였다. 「저리고 쓰린 슬픔은 힘이 되고 열이 되어」와 「K방역과 한국사회의 그림자」는 한국의 방역 성과 이면을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지면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는, 나머지 23개의 글 역시 코로나19가 던져놓은 질문에 대한 통합의료인문학의 잠정적 답변이다.

여전히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도 매우 불안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뉴스도 들려오지만, 이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우리 연구단에서는 이 책의 속편을 기획하여 집필 중에 있다. 아마 내년 초에는 코로나19가 온통 뒤덮어버린 2020년을 되짚어보는 두 번째 책이 출간될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늘 그렇듯, 그저 그렇게 지나가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을 주목하고 증언해야 한다. 우리의 관성적 삶을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를 인문학의 시선으로 성찰하고, 의료인문학의 목소리로 발언할 것이다. 언젠가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깊은 심연으로 사라질 것이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은 다시 긴밀해질 것이다. 이 혼란을 틈타 은근슬쩍 우리를 후퇴시킬 공리를 하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지금의 성찰에 힘입어, 그간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했던 비루함과 부당함은 떨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폭로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과 취약한 지형들을 향해서는 고개를 들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인문학의 대답



최 성 민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2019년 인문한국플러스 융복합 분야 사업에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이 선정되었다. 그간 의료인문학이 인문학 각 분과의 성과를 의료계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면,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은 의료를 인문학의 범주로 끌어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사회의 인간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는다. 인간 삶의 중심에 의료가 있기에 인문학의 시각으로 의료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우리 연구단은 학술대회, 전문가 특강, 콜로키움 등을 개최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문학 시민강좌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구단 활동이 잠정 중지됐다. 병원과 건강센터, 중고등학교에서의 강연이 줄지어 취소되었고,

영국에서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도 무기한 연기되었다. 계획들은 혼란에 빠졌고, 활동은 위축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의료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커지고 있던 때, 의료인문학연구단다운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돌출되었다. 시류에 맞춘 발언을 하는 것이 인문학답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문학의 시각으로 '코로나19'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합의료인문학의 지향과 일치한다는 의견이 보다 강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이 국면에서 의료인문학이 사회와 거리를 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19명의 증언

책 출간이 결정된 이후에는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했다. 코로나19는 시시각각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은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에 쓰여졌다. 3월초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였다. 그러나 4월말에는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리수로 유지되었다.

반면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는 봉쇄와 의료 붕괴 속에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지난 1월, 연구 교류를 위해 방문했던 각국의 해외 학자들이 2월에는 한국의 상황을 걱정하며 연락을 해왔지만, 3~4월이 지나면서 정반대의 국면이 벌어졌다.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구했다. 한참의 세월이 흘러 충분한 분석과 자료 검토를 통해 쓴 연구서와는 달리, 다소 설익고 잠정적일 수 있는 목소리겠지만 이 또한 생생한 증언이 되리라 믿었다. 이 책 제목의 '데카메론'은 14세기 보카치오의 작품에서 차용한 것이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을 피해 교외 별장에 모인 열 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한 것을 모은 책이 바로 '데카메론'이다. 여기에 수록된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그다지 깊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세의 엄숙함과는 더욱 더 거리가 멀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와도 다르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상과 삶이 담긴 생생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문학사'는

이 책을 근대 소설의 선구적 텍스트로 평가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우리가 펴낸 『코로나19 데카메론』에는 19명의 연구자가 쓴 32개의 글이 실려 있다. 각자의 원래 전공 분야는 문학, 철학, 사학, 사회학, 인류학, 의학, 한의학 등 다양하지만, 모두가 '통합의료인문학'의 지향을 공유하며 코로나19가 뒤흔친 세상을 응시하였다.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에 대한 책들이 쏟아졌지만, 이처럼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다채로운 관점으로 글을 집필하였으면서도, 하나의 연구단의 이름으로 출간된 책은 『코로나19 데카메론』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록된 글들 중에 「코로나 시대의 언어는 새로운 언어적 변화를 주목했고, 「감염병과 도시봉쇄·이동통제」는 100년 전 감염병과 도시봉쇄의 역사를 살펴봤다. 「유느님을 울렸던 의료인과 파업에 나섰던 의료인은 다른 사람인가는 의료인들에 대한 예우와 동시에, 그들의 책임에 대해 발언했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 필